



여수시, '지방세 컨설팅' 추진...행정 신뢰성 제고

세무 관련 부동산 사업 진행 시 정보 사전 안내

여수시가 전남도 최초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달부터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지방세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컨설팅은 부동산의 취득·매각·변동 등이 발생하는 세무 관련 사업 추진 시 지방세 발생 여부, 적기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적용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시책이다.

추진 절차는 먼저 주무부서인 세정과가 분기별로 전 사업부서에 지방세 과세 자료를 요청한다.

사업부서는 사업명, 사업개요, 부동산 변동내역 등 컨설팅 자료를 제출한다.

세정과는 지방세 대상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 법령해석과 사례 검토, 상급 기관 자문 등을 거쳐 결과를 사업부서와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시는 이번 시책이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과 세원 누락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신고·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컨설팅은 민선 7기 시민 중심 세무 행정의 일환이다"면서, "이번 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아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바람·먼지 걱정 없는 버스승강장 운영

승강장 28곳 선정해 탈부착식 투명 방풍막 설치



장흥군은 주민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에 탈부착식 온기나눔 방풍막을 시범 설치해 운

막을 설치했다.

방풍막은 추위를 차단하고 내부에서 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로 디자인했다.

천바탕과 먼지를 피할 수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약자 등이 한파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와 방풍기를 장착한 승강장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운 바람과 먼지 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송호빈 기자

담양군, 직원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담양군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이집 친절교육 자체강사제'로 직원들이 각종 민원에 대한 응대요령을 체험 사례별로 발표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친절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실시한 친절교육에서는 조직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주제로 공감, 주장,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

었다. 특히, 내부 공직자간 공감하는 의사소통은 주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새롭고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과 더 가까이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지부장 오정현)는 지난 11일 2018년도 영암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영암군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와 영암군 간 협약에 의해 2018년 한 해 동안 영암사랑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보조금카드 사용금액의 0.1%~1.0%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해 조성되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50,481,330원으로 전년도보다 3,800,000원(8.2%)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이번 제휴카드 기금을 올해 세입으로 편성해 군민을 위한 소중한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과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는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기금이 지역 교육발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농협 제휴카드 사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최고의 맛·향·빛깔' 명품 강진딸기 수출 한창

인도·말레이시아에 이어 일본 수출에도 청신호

강진군 마음애그린 농산물 공동선별장에서 선별한 강진딸기가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수출 성공에 이어 현재 일본에도 수출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수출 길이 밝을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진군의 대표적 겨울철 과채류인 딸기는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으며 당도는 평균 12브릭스로 타 지역보다 높다.

평균기온이 타지역 딸기생산지대에 비해 평균온도가 2도 이상 높고

출하시기 일조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20여 시간이 많은 지역적인 이점이 작용하여 맛, 향, 빛깔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명품 강진딸기로 해외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딸기 수출은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주) 회원농가를 주축으로 10여 농가 딸기 생산량의 약 30%가 수출하는데 쓰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해 현재 2회씩 1.2톤을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항공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내수단기보다 약 20%

높은 가격에 출하되고 있다.

앞으로 금년 4월까지 수출량은 약 26여톤(3억 9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수용 딸기와는 다르게 수출용 딸기는 포장 및 선별작업에서 속도가 70~80%로 정밀성과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출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위해 국제 GAP인증 출원 등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 생활개선회, 역량 강화 현장 교육

읍·면 회장단 등 40여 명 순천·여수 현장 견학 실시



한국생활개선회 화순군연합회(회장 박태은)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다녀왔다.

교육에 참여한 생활개선회 회원 40여 명은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생활개선회 활동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여수시 잠곡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을 방문해 농산물의 부가가

치를 높이는 가공 제품 개발, 로컬푸드와 판로 확보 등 농가소득 향상 모델을 견학했다.

박태은 연합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 비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농산물의 가공과 마케팅 기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읍·면별 특성에 맞는 농업 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며 "생활개선회원들이 역량을 강화해 농촌 여성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비 위생교육 실시

축제 대비 위생교육 실시

진도군이 최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4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진도군지부가 주최, 일반음식점 영업주 45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은 물론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식문화개선 및 친절 서비스 ▲영업주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농산물 원산지 관리 ▲음식점 영업주 친절 교육 등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식품위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서비스 다짐을 위한 친절·위생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취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